

석축이 있는 문전거리



히에이산에서 비와코를 바라보다.

◎사토보의 한 거리

히에이산 엔라쿠지와 히요시타이샤의 문전거리로서 번창했던 사카모토는 [사토보]의 거리이기도 합니다. 히에이산 위의 엄격한 수행의 장소인 [야마보]에 대해, 기슭의 사카모토에는 노승의 은거처인 [사토보]가 마련되었습니다.

◎아름답고 견고한 아노슈즈미

옛날에는 사이초의 시대에 산 위의 토목 공사를 도급 받는 석축기술집단[아노슈즈미]이, 중세가 되어 사토보의 토지 정비를 담당하고, 아노슈즈미로 불리는 견고한 석축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었습니다. 지금도 약 50개 사찰의 사토보가 산록에 위치하고 있어, 히에이산으로 부터 청결한 물을 끌어들인 정원을 볼 수 있습니다.

◎시가인문 유적을 중심으로 사토보는 군서

과거 높은 격식을 자랑한 시가인문 유적은 천태종의 종정이 된 왕족 대대의 은거처. 이곳을 중심으로 사토보의 길이 형성되었습니다. 산 위의 토도, 사이트, 요카와의 각 지역마다, 기슭의 사카모토에도 사토보가 군서하는 마을이 형성되고 있었다고 합니다. 현재 일반 공개되는 것은, 시가인문유적과 옛 죽림원입니다.(모두 유료)



히요시 승마장

히요시타이샤의 참배길입니다. 길의 양측에는 측도가 있고, 아노슈즈미에 둘러싸인 사토보가 늘어서 있습니다.



시간인

히에이산 엔라쿠지의 총무를 담당하는 사무소가 사토보에 있었습니다. 이 절은 토도지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.



아노슈즈미

한반도를 뿌리로 한 석축기술집단 아노슈는, 사카모토의 이웃 마을, 아노에 살고 있었습니다. 사토보의 조성도 아노슈의 손에 의한 것입니다.



시가인문유적

엔라쿠지의 좌주가 된 왕족의 은거처였기에 높은 격식을 자랑합니다. 일반공개되어 있는 국지정명승



구 죽림원

사토보의 하나로 일반공개되고 있습니다. 오미야카와의 청류를 도입한 정원은 하치오지야마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.